

행복과 희망을 드리는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목소리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가 “행복과 희망을 드리는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목소리”라는 소식지로 매일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129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의 진솔한 이야기와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소식지를 통해 들어보세요.

전 국민이 129를 기억하는 그 날까지!!

보건복지콜센터 직원일동



행복과 희망을 드리는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목소리

C o n t e n t s

1. 상담수기

아버님! 희망을 가지세요!	노은영(사회복지정책상담팀)	1
소중한 삶과의 갈등, 자살	최지현(위기대응상담팀)	3

2. 에세이

벌써 1년	김현주(저출산고령사회정책상담팀)	5
신입상담원을 예쁘게 봐주세요	최지미(위기대응상담팀)	7
힘들 때 진정 힘이 되는 친구	조은경(보건의료정책상담팀)	9

3. 보건복지정보

1. 의료사고로 고민이세요? 의료중재원과 상담하세요!	10
2.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11
3. 보다 편리해진 장기기증 희망등록	12

4. 129소식

이달의 행사 및 활동	13
상담원 교육 / 우수상담원	14



아버님! 희망을 가지세요!



노은영
| 사회복지정책상담팀 |

나는 7살과 5살 난 두 아이를 키우며 일을 하는 소위 '직장맘'이다. 아이들이 더 어릴 때는 쫓아다니며 뒤통다끼리를 하느라 몸이 힘들었고, 큰 아이가 7살이 되면서부터는 몸은 이전보다 조금 편해졌지만 양육문제로 이런저런 고민이 생기면서 마음이 고단할 때가 많다. 학교에 입학하면 공부 잘할 수 있을지, 친구들과는 잘 지낼 수 있을까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로 고민을 하다보면 머리가 지끈지끈 쭈시기도 한다.

부부가 마음을 합쳐 아이를 키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한부모 가정의 어머니이나 아버님과 상담을 하다보면 이 모든 고민을 한사람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니 같은 부모의 입장에서 무척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얼마 전, 50대의 중년 남성분이 자신을 한부모 가정의 가장이라고 소개 한 뒤 고민을 털어놓았다. 본인은 중증 장애인으로 중학생 딸과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를 받고 있는데 집이 넓아 겨울이면 전기장판에 이불을 깔고 간신히 버텨 왔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1~2월에 딸이 자꾸 보일러를 틀어 가스요금이 많이 나와 생계급여로는 충당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하셨다. 가슴 요금도 걱정이지만 보일러를 틀지 말라고 하면 딸은 자신에게 짜증을 낸다면 밖으로 나가 버렸고, 사춘기라 예민한 아이가 더 엇나갈까봐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못한 채 속만 앓고 있다고 하셨다.

엄마 없이 아빠와 사는 딸이 가엽고 가진 것이 없는 아버지라 미안한 마음이 크지만 딸아이가 자신의 마음을 몰라 줘 서운한 마음에 혼을 내면 딸아이는 자꾸 밖으로만 나가버려 걱정이라고 하셨다. 게다가 요즘은 한 집에 살면서도 대화를 거의 하지 않고 계시다며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따님에 대한 서운한 이야기를 쏟아 놓으셨다.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었는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시며 숨죽인 흐느낌을 느낄 수 있었다.

엄마 혼자 자녀를 키우는 것도 힘이 드는데 아빠가, 그것도 중증 장애인이라면 본인 몸 검사하기도 쉽지 않으실 텐데 중학생 딸과 생활을 하는 모습은 말로 듣지 않아도 힘들 것이라는 생각에 나의 마음도 아파오기 시작했다. 다행히 고객은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으니 기분이 한결 좋아 지셨다며 고맙다는 인사를 여러 차례 하셨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도 별도의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하지 않아 구청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아볼 수 있도록 민생이관접수를 도와드렸다. 또한 당장 납부해야 할 가스요금도 고민이지만 아버님의 더 큰 고민은 따님과의 관계일 것이라는 생각에 연료비 지원과 더불어 가족상담과 가정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청 담당자에게 함께 전달을 하기로 했다.

지금은 비록 오해로 인해 힘이 들지만 언젠가는 아버님과 따님이 서로 이해할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된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이라는 열악한 가정환경에서도 곳곳이 서로를 의지하며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 부녀의 앞날이 밝기를 기도한다.

‘아버님! 희망 잃지 마시고 힘내세요!!’
마음으로 응원을 보낸다.

소중한 삶의 갈등, 자살



최지현
| 위기대응상담팀 |

연일 이어지는 자살 소식. 소중한 생명이 매일 사라지고 있다. 심각한 줄은 알았지만 수치로 확인 해보니 매우 놀라웠다. 2010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하루 평균 43명, 연간 1만 5천 명이 자살로 목숨을 잃고 있고 자살기도자의 수는 4만명이라고 한다.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조사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점점 연령층이 낮아지고 노년의 자살이 많아지면서 전 연령층에서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

1992년 자살은 사망원인이 12위였으나 2005년과 2010년에 4위, 2011년에는 2위로 조사되었으며, 2007년부터 2011년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수가 군인과 민간인 포함하여 이라크에서 3만 9천 명, 아프가니스탄 1만 5천명으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수는 약 7만 2천 명으로 자살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보건복지콜센터의 위기대응상담팀에서 자살 상담을 하고 있는 나는 '자살'이라는 단어를 간과할 수 없다. 자살과 관련된 뉴스를 접하게 되면 혹시 보건복지콜센터에 상담을 받았던 사람은 아니었을까하는 생각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기도 했다.

문득 수화기 너머로 자살을 결심하던 분들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20대 초반의 청년은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로 학업을 포기 할 수밖에 없었고 약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고 있다고 했다. 하루 24시간 중에 20시간 이상 약기운으로 잠을 자고 잠시 깨어 있는 그 시간에 통증을 견딜 수 없어 삶을 마감하고 싶다는 젊은 영혼. 질병으로 인해 더 이상 고통을 느끼고 싶지 않다며 울먹이는 그분의 음성은 아직도 나의 마음을 저리게 한다.

청장년의 자살상담도 힘들지만 특히 어르신들의 자살상담은 더욱 어렵게 느껴진다. 상담이 꼭 경험을 하거나 연령이 높아야 유능한 것은 아니지만 고객의 입장에서는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하거나 자신보다 연령이 높거나 비슷한 연령의 상담원과의 상담이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다. 어르신 역시 이야기를 시작하시기 전에 상담원의 연령과 삼강오륜을 아는지 상담원의 역량에 대해 확인 질문을 하면서 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셨다. 분명 어르신보다 인생경험이 적은 것은 맞지만 어르신들의 자살상담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음을 안내하니 조금씩 마음을 열고 어렵게 이야기를 하였다.

어르신은 자정이 한참 지난 시간에 도움을 요청했다. 자살사이트를 통해 동반자살을 꿈꾸지만 시각장애인으로 컴퓨터를 볼 수 없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다고 했다. 동반자살, 차에서 연탄을 피우기, 바다에 투신하는 상상을 한다며 자살자들이 부럽다는 표현을 하였다. 어르신은 자살을 생각 할 만큼 지금의 자신에 상황을 몹시 괴로워하여 지역정신보건센터로 사례 이관을 하며 상담을 종료했다.

나이를 불문하고 삶은 소중하다. 수화기 너머에 힘겹게 삶에 대한 갈등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이미 자신의 삶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든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 마지막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주변에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관심을 갖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권유해야 한다.

또한 자살은 우울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울증도 예방방법이 있다고 한다.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평소 주변 조명은 밝게 하고 밝은 계열의 색깔인 녹색으로 주변을 꾸미는 것이 좋다고 한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과 김, 미역, 다시마, 호두, 아몬드, 땅콩, 콩치, 고등어 등 뇌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섭취하면 우울증에 효과가 있고 패스트 푸드, 인스턴트 음식, 탄산음료는 우울증에 악영향을 주므로 피해야 한다고 했다

자살, 소중한 삶과의 갈등에서 삶을 택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주변인에게 좀 더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

벌써 1년...



김 현 주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상담팀 |

보건복지콜센터에 입사한지도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게 하루하루는 무척 빠르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전업주부의 삶을 살다가 어린 아이들을 두고 직장을 다니게 되면서 육아와 직장을 병행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 1년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주변에 직장을 다녀야하지만 어린 자녀들을 맡길 곳이 없어 직장을 그만두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시부모님과 함께 생활하여 아침에는 시어머님이, 저녁에는 시아버님이 아이들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등·하원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늘 감사해하며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만약 시부모님과 같이 살고 없었다면 한 시간 넘는 거리에 위치한 회사를 출·퇴근 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토요일에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으로 되어있지만 운영시간을 지키기는 어린이집에 입소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처럼 힘들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1년이기도 했습니다. 입사하기 전에는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기만 했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전혀 관심도 없었는데, 보건복지콜센터에 입사 후 보육정책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업무교육이 있는 날을 제외 하고 퇴근시간이 되면 곧바로 집으로 직행하게 되는데 어린 자녀를 둔 엄마들은 숨이 멎을 것처럼 지하철역을 향하여 전력질주를 합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하는 시간 내내 아이들도 보고 싶고 혹시나 무슨 일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과 조금이라도 늦게 되면 초조함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는걸 보면 아이들을 두고 직장 다니는 엄마들의 걱정스러운 마음을 그대로 인 것 같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더 잘해줘야 하는데 막상 집에서 아이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해서도 적잖이 실망스런 1년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아이들에게 화내고 짜증내고 혼내고를 반복하지만 잠들기 전에는 아이들에게 왜 그랬을까하는 미안함에 후회도 합니다. 그럴때면 아이들의 밝은 웃음과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떠올리며 다시 한 번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다짐을 합니다.

보육에 대해 문의하는 맞벌이 부부, 워킹맘 등의 상담전화가 오면 앞으로 조금 더 이해와 공감으로 소통하는 상담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우리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일하는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기 위해서도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신입 상담원을 예쁘게 봐주세요



최 지 미
| 위기대응상담팀 |

작년 11월, 오랜 기간 동안 취업준비를 한 나에게 드디어 ‘보건복지콜센터 위기대응상담팀 상담원에 합격하셨습니다.’ 라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첫 출근하는 날, 아직은 낯선 동기생들과 서먹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간의 얼굴을 익혀가며 교육을 받게 되었다. 매일 반복되는 시험과 익숙하지 않은 내용으로 가득한 사업 지침서들로 인해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졌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즐거움도 있지만 어느새 하루하루 늘어나는 시름에 턱밑까지 다크서클이 내려온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힘든 교육기간 중에도 즐거운 시간이 있다. 동기들 간에 힘든 이야기들도 나누고 함께 노래 부르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우리 하나 되는 하모니’ 라는 합창시간이다. 화음이 맞지 않아 지휘자와 반주자 선생님이 많은 애를 먹기도 했지만, 점점 아름다운 화음소리가 날 때면 괜히 입가에 미소가 번지기도 했다. 비록 짧은 연습시간이었지만 수료식에는 우리들의 하나된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어 뿌듯하기도 했고 무사히 끝냈다는 안도감과 서로에게 ‘고생했다, 수고했다’ 라는 눈빛을 주고받기도 했다.

수료식을 마치고 위기대응상담팀에 배치되어 전화 상담을 시작했는데 여기저기서 울리는 전화 벨소리에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상담을 시작하면서 ‘과연 내가 상담하는 것이 맞는 걸까?’ 라는 의구심과 불안이 가득했지만 팀장님과 파트장님, 그리고 따뜻한 선배님들은 나에게 큰 버팀목이 되어 주셨다. 서툰 상담에도 ‘잘 하고 있다, 긴장하지 마라’ 라고 응원도 해주시고 퇴근길에는 미처 가르쳐주지 못한 내용도 자세히 알려주시는 자상함까지 느낄 수 있었다.

조금씩 익숙해질 무렵 생계비 도움을 요청하는 고객과 상담을 하게 되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녀양육, 질병으로 인생의 고단함을 느낄 수 있어 마음이 저러왔다. 안타깝게도 긴급지원 대상자에는 해당이 될 수 없어 구청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상담 받을 수 있도록 민생이관 접수를 해드렸다. 상담 내내 하염없이 우는 고객의 울음소리가 통화가 종료된 후에도 귀가에 맴돌았다. 긴장된 상태로 상담을 마치니 얼굴도 붉게 상기되어 있고, 손에도 땀이 가득 고여 있었다. 고객의 아픔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쓰이기도 했다.

아직은 고객의 마음을 따뜻이 어루만져줄 수 있는 여유는 부족하지만 그들의 잠시라도 마음 편히 쉬어갈 수 있는 휴식처가 되어드리고 싶다. 하루에도 몇 번씩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 우울증과 생명을 포기하려는 분들이 힘겹게 129번을 누른 사람들이 '희망'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조금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14기 신입상담원을 예쁘게 봐주세요.

힘들 때 진정한 힘이 되는 친구



조은경
| 보건의료정책상담팀 |

한해의 시작은 1월이지만 봄이라는 계절과 새학기 때문인지 3월에는 뭔가 본격적인 한 해의 시작으로 느껴진다. 특히 올해는 신입 대통령의 취임으로 더욱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다. 새로움이라는 것은 낯설기는 하지만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에너지가 있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국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겠지만 나는 아무래도 보건복지콜센터 보건의료정책상담팀의 상담원으로서 주로 상담하는 분야인 의료비지원제도에 언제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료비지원제도를 상담할 때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몸과 마음이 편찮으셔서 힘든 시기에 계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알고 있고, 그 정보를 전해 드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특히 도움이 되었다며 정말 고맙다고 진심을 담아 말씀해주는 분들에게 그 순간엔 목이 아무리 아파도 더 안내해드릴 수 있는 제도가 많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생긴다.

최근에는 18세 미만 아동,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만성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제도를 중점적으로 상담해드리고 있다. 새정부 국정과제 중 차상위 기준을 중위소득 50% 이하로 상향하고, 부처별 지원 및 긴급복지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중산층 도약 기반 마련 과제와 함께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거론되고 있다. 하루빨리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어서 많은 분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다.

힘들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이 있다.

국민들이 아프고 힘들 때 든든하게 지켜주는 새 정부가 되길 기대해본다. 나 또한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보건복지콜센터의 상담원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의료사고로 고민이세요?

- 의료중재원과 상담하세요! ☎ 02-6210-0114 -

♣ 환자와 의료인 간의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조정·중재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의료분쟁 무료상담 (☎ 02) 6210-0114), 과실유무 조사, 조정중재 업무 등을 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 개원 이후 9개월간(2012년 4월 ~ 12월) 하루 평균 150여건의 상담을 실시, 총 5백여건의 조정·중재 신청을 받아 환자와 의료인을 돕고 있습니다.
- 의료중재원의 의료사고감정 및 조정·중재업무는 법조계와 보건의료계, 학계, 소비자권익위원 등 전문가에 의해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 의료중재원은 22,000원(손해배상액 500만원 이하 기준)의 저렴한 수수료로 90일 이내에 신속하게 의료분쟁을 해결합니다.

♣ 의료중재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견학 신청을 받습니다.

- 의료중재원을 방문하시면, 조정중재 제도 및 절차, 이용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 수 있으며, 견학도 가능합니다.
- 단체 또는 개인 10인 이상 신청가능하고, 신청서 양식은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견학 프로그램>

- 프로그램 내용 : 동영상 관람 및 제도 소개, 기관 견학
- 약 1시간 소요/월~금(토·일·공휴일 제외)
- 신청 : 의료중재원 교육홍보팀 (02-6210-0160~1)

☞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http://www.k-medi.or.kr>) 참고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런 위기사항!!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와 의논하세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무엇인가요?

- 갑작스러운 위기사항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위기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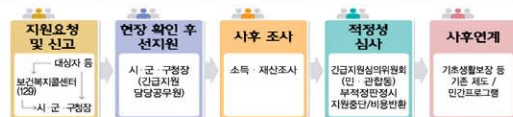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이혼으로 인한 소득상실
- 단전 1개월 경과 시
- 주소득자의 휴·폐업(간이과세자로 1년 이상 영업지속, 소규모 제조·도매업자), 실직(고용보험 미가입자 등)으로 생계유지 곤란
- 출소 후 생계 곤란, 거소 없는 경우(기초생활보장사업 우선연계)
- 가족의 방임,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 위기에 처한 경우 (노숙인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상담 후 지원)

소득·재산기준

- 소득 : 최저생계비 150% 이하 (단,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
- 재산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 선지원 후처리 원칙이며 현장 확인 후 긴급지원 필요시 우선지원

사업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부정수급... 양심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적정성 심사에서 확인되면 지원중단은 물론 이미 지원 받은 비용을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04만원 (4인기준)	6회
	·검사, 치료등의료서비스지원 - 300만원이내 (본인부담금및일부비용면제)	300만원 이내	2회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최고57만원 (대도시, 4인기준)	12회
	·사회복지시설이용 지원	·사회복지시설임소, 이용에 필요한 비용	129만원 (4인기준)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학용품비	초 19만원, 중 31만원, 고 38만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
	·그밖의 지원	·연료비지원(10월~3월) : 85천원 ·해산비(50만원), 장제비(75만원), 전기요금지원 (최대50만원) *전기요금은 단전 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소전류 제한기부설 포함)	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지원		횟수 제한 없음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로 연락주세요

☎ 주소지의 시·군·구청

☎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없이 129(www.129.go.kr)

보다 편리해진 장기기증 희망등록

♣ 장기기증 희망등록이란?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심장사 또는 뇌사할 경우 장기기증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한 본인이 사망 혹은 뇌사판정을 받을 시, 가족분들께서 가까운 장기이식의료기관이나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 연락하셔서 장기 등 기증의사를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모바일(핸드폰) 혹은 PC를 통해 신청하기

- 2013년 4월 1일부터 간편하게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서도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홈페이지(www.konos.go.kr)의 장기기증희망등록 메뉴에서 ‘온라인 기증희망 등록하기’를 클릭한 다음 휴대폰 본인인증이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을 거친 후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 우편을 통해 신청하기

- 장기이식관리센터 홈페이지(www.konos.go.kr)의 장기기증희망등록 메뉴에서 ‘우편신청’ 버튼을 클릭한 후 받으실 주소를 입력하거나 또는 센터로 전화(02-2628-3602)주시면 장기기증 희망신청서를 회신봉투와 함께 보내 드립니다.

○ 가까운 장기이식등록기관을 방문해서 신청하기

- 장기이식관리센터 홈페이지(www.konos.go.kr)의 ‘생명나눔관련기관’장기기증등록기관’ 메뉴에서 지역내 가까운 장기이식등록기관을 찾아보거나 센터로 전화(02-2628-3602)주시면 가까운 장기이식등록기관을 안내해 드립니다.

♣ 장기기증 희망등록이 완료되면 어떻게 되나요?

장기기증 희망등록이 완료되면 입력하신 핸드폰으로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일반우편(5일~7일 소요)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증과 신분증용 스티커, 차량용 스티커가 발송됩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증]

☎ 장기기증 희망 및 상담문의 :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02-2628-3602)

각종 행사 및 활동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 교육-1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 교육-2



상담원 교육

일자	교육내용	대상
3.5	노인복지시설 관련 변경사항	보건의료정책상담팀 21명
3.8	2013년 사회복지법인	보건의료정책상담팀 등 43명
3.11	2013년 사회복지시설관리	사회복지정책상담팀 등 56명
3.14	2013년 영양플러스 사업	보건의료정책상담팀 22명
3.19	2013년 암환자 지원 사업	보건의료정책상담팀 22명
3.22	2013년 건강검진 사업	보건의료정책상담팀 22명
3.28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보건의료정책상담팀 22명

우수 상담원

BEST 상담원

정은진 (보건의료정책상담팀)
 조정은 (사회복지정책상담팀)
 이윤정 (저출산고령사회정책상담팀)
 이영심 (위기대응상담팀)

JUMP UP

김진주 (보건의료정책상담팀)
 정은주 (사회복지정책상담팀)
 최유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상담팀)
 소정란 (위기대응상담팀)

129 기네스

상담건수 최다 : 이채빈 (보건의료정책상담팀)
 상담시간 최장 : 송지나 (사회복지정책상담팀)

